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定價 一個月 壹圓 (朝夕刊) 前金 五個月 五圓 ... 廣告料 五號活字 一行 ...

發行所 朝鮮日報社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李容九 發行人 安在鴻

評壇漫筆
露國의東方政策과中國革命의特質(三)
北京에서 梁明

『또會往에는 民族自決主義는 不當한解釋되어서 自治權에制限되는수도 적지안엇섯다……즉被壓迫民族의權利를 그固有한文化的施設을所有하는데制限하고 全政治的權利는 支配民族의手中에依然히保有케하자는것이엇섯다……(그런데)레닌主義는 民族自決의槪念을 殖民地及半殖民地의被壓迫諸民族의完全한獨立權外지에 擴張하엿다 즉諸民族의 自主的國家的存在權外지에 擴張하엿다 ──그리하야 民族自決主義는 帝國主義的戰爭中에社會國粹主義者들에依하야 適用되든 大衆을欺罔하는手段으로부터 帝國主義的野心과國粹主義的陰謀를 摘發하여내며 大衆을 國際主義的精神안에서 啓蒙하는手段이되엇다

『特히 曾往에는 民族問題는 資本主義的支配의問題 帝國主義顚覆의問題 『푸로레타리아』××의問題와는聯絡업는分離된自立한問題로 取扱되엇섯다……歐洲에서의『푸로레타리아』의勝利가殖民地의解放運動과直接同盟이업시可能하다하며 民族問題及殖民地問題의解決이 『푸로레타리아』革命의道程以外에잇서서 帝國主義에對한××的鬪爭이업시도穩便하게實行되리라하엿섯다……(그런데)레닌主義는 民族問題는다만『푸로레타리아』革命과關聯하야 解決할수잇고 西方에잇서서의 ××의勝利로가는길은殖民地及半殖民地諸國家의 帝國主義에對한解放運動과의 ××的同盟을 넘어서야가는것임을證明하엿고 帝國主義的戰爭과 露西亞에잇서서의××(이러케하야) 民族問題는『푸로레타리아』革命의 一般的問題의一部分이되고『푸로레타리아』獨裁政治의一部分이되엇다

또그는 被壓迫民族의解放運動과『푸로레타리아』革命과의關係를論하야『民族問題를 解決함에際하야 레닌主義는以下의諸信條로부터出發한다』하엿다

(一) 世界는二個陣營으로난우어젓다──그手中에 財政資本이잇고 世界住民의絶對多數를搾取하는所謂『文明民族』의少數의陣營과 이絶對多數를形成한被壓迫、被搾取民族 즉殖民地及半殖民地의陣營으로난우어젓다

(二) 財政資本에依하야搾取當하고壓迫當하는殖民地와從屬國家들은 帝國主義의最大한準備軍을形成하엿고 帝國主義의最重要한힘의源泉이되어잇다

(三) 被壓迫諸民族 즉殖民地及半殖民地諸邦의 帝國主義에對한革命的鬪爭이 그들을 壓迫과搾取에서解放하는唯一한길이다

(四) 가장重要한殖民地及從屬國家는 벌서民族的解放運動의渦中에들어잇스니 그運動은世界帝國主義의危機를釀成치안코는마지안흘것이다

(五) 先進諸國에잇서서의『푸로레타리아』運動의利益과 殖民地에잇서서의民族運動은必然的으로이두가지革命運動을 共同의敵 즉帝國主義에對한共同戰線으로 統一結合하기를要求한다

(六) 先進諸國에잇서서의勞働階級의勝利와 被壓迫民族의 帝國主義로부터의解放은 共同革命戰線의形成及團結이업시는不可能하다

(七) 이革命戰線의形成은『祖國的』帝國主義에對抗하야 壓迫하는國民이被壓迫諸民族의解放運動을積極的으로가장有利하게援助함이업시는不可能한것이다 웨그러냐하면『他民族을壓迫하는民族은自由스러울수업기』째문이다

(八) 이援助는民族의分離權 즉民族의自主的國家的存在權이란標語를 擁護하고實現함을意味한다

(九) 이標語를實現함이업시는社會主義의勝利도의物質的基礎인世界經濟單位에잇서서의各民族의聯合과協力은實行이不可能한것이다

(十) 이聯合은다만任意的聯合이될수잇는것이니그는各民族의 互相間의信賴와友愛的關係에依하야 支持되지안허서는안될것이다(未完)

英國水兵과 勞働者衝突
佛蘭西兵도誤認被打 宜昌도險惡

(宜昌二十日發) 宜昌의對英感情은益益惡化하야英國水兵과勞働者는十九日에衝突되엇고又同日英兵으로誤認된佛蘭西水兵도勞働者에게毆打를當하엿더라

郵便局罷業處置

(上海二十一日發) 郵便局의罷業에對하야工部局은二十一日午前午後會議를開하엿는데郵便局長은罷業은明二十二日엔終熄될터이나一日의猶豫를申出하엿슴으로工部局은二十二日에至하야도復業치안는時는徹底的手段을取할것을決議하엿더라

日本紡作業繼續

(上海二十一日發) 英國及中國側의紡績은全部罷業되고오직日本側만이二十一日에도作業을繼續하엿더라

總工會所在不明

(上海二十一日發) 上海總工會及船員工會等은所在를嚴秘히하고且隨時移轉하야工部局警察의耳目을避하고잇더라

北方의各租界도 漢口와同樣解決?
廿一日英中交涉席上 ◇英國公使의希望

(北京二十一日發) 廿一日의英中交涉에서英公使『람프손』氏는英國은北方의租界問題解決에關하야漢口同樣의方策을取할希望을가젓다는뜻을陳述하엿는바顧氏는詳細는具體的事項에亘하야는今後考慮한後徐徐議하리라고回答하엿다더라

布哇外語校는 憲法에違反
排日感情이動機로 米大審院判決

(華盛頓二十一日發) 米國大審院은布哇의外國語學校法은憲法違反된다는旨를判決하엿는데同法은布哇의私立學校에對하야嚴重한制限을加한것으로當初日人學校를目的한것이朝鮮中國人其他國民의學校에도影響이波及되엇더라

포氏決議案可決
新條約締結交涉問題

(華盛頓二十一日發) 米國下院은二十一日『쿨릿지』大統領에對하야新條約締結交涉을開始하기를要求한下院外交委員長『포터』氏의決議案이可決되엇더라

東洋排斥案撤回
南阿聯邦政府發表

(케프타운二十一日發) 南阿聯邦政府는亞細亞人排斥法案撤回에同意한旨를發表하엿더라

케롤氏呻吟

(華盛頓二十一日發) 米國國務長官『케롤』氏는激烈한感冒로臥床中이더라

濱口內相歸東 首相靜養勸告

(東京電) 濱口內相이若槻首相을爲始로閣僚에게不滿을가지고잇는것은事實인데氏가今回歸京한後는直時安達遞相의內相代理를解하지아니하면아니될事情이잇스면서政府는아직此擧行케안흘한데而若槻首相은二十日氏를訪하엿슴에議會도半이나지나갓슴으로內相이一日이라도빨리復任할必要가업스니全快하기까지靜養하면엇더냐고勸說하엿는데濱口氏는此에快諾을與하지안튼바그이튼날江木法相의訪問다시安達、片岡兩相의來往도首相의意를바든靜養勸告이라고보는바此間經緯는內閣의對外政策與黨의勝關도加味되어其成行은頗히重大視되더라

山口代議士 便所에卒倒

(東京電) 埼玉縣選出政友俱樂部代議士山口政二氏는二十二日午後零時五十五分에衆議院內便所에서卒倒하엿슴으로直時醫務室에다려다가手當을加하엿든바腦溢血로生命이危篤하다더라

大邱南原間 鐵道期成大會
境遇딸아私鐵創立

邱南鐵道(大邱南原間約九十八哩)期成會聯合大會는廿一日開催된바出席者一千餘名으로非常한盛會이엇스며決議文의內容은如左하더라(大邱)

邱南鐵道를朝鮮鐵道에서敷設하지아니할境遇에는期成會가發起하야別個로私鐵會社를創立하야所期의目的을達成할일

五、朝鮮鐵道線에잇는派遣을第三리자

兩關係者 實地踏査 邱南線有望

慶全連絡의橫貫線에對하야從前豫想線된全邱線을邱南線大邱南原間으로改定코서去十日該線路의視察團一行이高靈成陽雲峰等踏査次로大邱府尹上內氏外七名이南原에到着한同時에野田全北道內務部長과松井土木課長도南原에到着하야多數한官民有志의歡迎裡에諸般意見을披瀝하엿다는데地理産物其他諸方面으로보아邱南線이極히有望하다하며다만工事中多少困難한곳이잇슬뿐이라더라(南原)

△△△新聞雜誌△△△
一千一百萬通
日本서朝鮮에

最近一年間에朝鮮과日本間에發着한通常郵便의數는總數八千六百四十八萬四千餘通으로그中에朝鮮에서發送한것이三千七百十六萬九千餘通이요日本으로부터到着한것이四千九百卅一萬四千餘通인바이는日本에서到着한것이一千二百萬通으로超過한것을示하얏는데이갓치超過된것의大槪는日本으로부터朝鮮에到着한新聞雜誌가一千一百萬通以上에達한基因이더라

非安協的 民族運動 等의五大標語決定

咸北靑年聯盟에서는現下朝鮮運動의轉換期에잇서서그聯盟自體의態度를鮮明히하고民衆의向路를바로잡기爲하야去月十七日左와五大標語를決定하엿다더라(鏡城)

一、朝鮮의모든運動을左翼旗幟下에集中하자
二、非安協的民族運動과協同戰線을組成하자
三、自治運動者를撲滅하자
四、朝鮮의모든運動政客的인켄챠의手中에서빼앗자

◇…寫眞은金泉에열린各思想團體懇談會…◇

思想團體解體와 新幹會를援助
金泉各團體懇談會

金泉金陵靑年會主催로金泉各團體懇談會는九個細胞團體代議員卅八名出席으로去十八日午後五時부터金陵靑年會館內에서開催되엇는데場內에會順을定하야서代議員資格審査 臨時執行部選擧와議案에入하야長時間討議가잇슨後左의四大事項을決議한바大體는思想團體를解體할것과新幹會를援助할일을決하얏더라(金泉)

◇決議事項
一、朝鮮運動의方向轉換과思想團體의役割(細項略)
二、勞働運動에關한件(說明略)
三、女性運動에關한件(說明略)
四、金泉協議會發起에關한件

◇常務委員=金仁洙 朴喜洙 金源 黃泰成 洪雨容

安成間=道路促進運動
當局食言에憤慨

寧遠郡住民들은去十九日에道李參與官來寧을機會로安成道路의速成에着手하여달라는陳情을하엿다는바그內容은大正八年에安州寧遠間의道路를開通할때에二個年間數百里에介在한百姓들이糧食을지고와서勞力하야드되어成功에達한바그當時에『安州寧遠間道路가完了된後速速하야安成道路는國費로着手한다』고明示하엿스나도不拘하고아직外지잇지어먹은자리라하야그가리陳情한것이라더라(寧遠)

群山幼兒院 校舍新築計劃
後援會長車氏發明

旣報=群山幼兒院은群山婦人敎育會의經營과同院維持後援會의援助로五十餘名의幼兒를길러왓스나群山米友俱樂部를院舍로使用하여運動場도업슬뿐아니라大路에接近된곳임으로兒童에게危險한點도잇서學父兄當局者間에一大懸案이잇든바去十五日群山錦和閣樓上에서會長車相根氏의招待로各新聞支局記者諸氏와가리懇談會를開하고群山幼兒院에關한問題의討議가잇섯든바그中重要한것은新春부터新院舍建築을計劃할것이라더라(群山)

德安義塾擴張
二百名을收容

孟山郡封仁面德中里德安義塾은開校以來四五個星霜에學生이늘어감으로有志金京模李在根氏等의發起로校舍五間을改築하야二百名을足히收容케되엇더라(北倉)

雄基支局有志招待

本報雄基支局에서는去十五日慶興郡農會에參席한各面長及有志諸氏를邑內料亭으로招待하야支局業務擴張에伴한諸賢의厚恩을謝禮하고저粗餐의饗應이잇섯더라(雄基)

寸鐵

投稿歡迎 十四字 五十行 以內 住所氏名明記

全州紙物商組合에 對하야

◇全北의紙物가 우리朝鮮紙物界에잇서서 그品質의地位가 엇더하며 얼마나그重鎭이엇다는것이 여기에서贅說할餘地도업는것이다 이와가티數年以來로 朝鮮紙物界에서 權威를지어잇다하는 全州紙의品質이 漸漸粗惡化하고粗雜化하야버리게된것은 우리朝鮮人一般이遺憾으로생각하는바이오 더욱히 이紙物商同業者가 좋은 … 不已하는바이나

◇이러한時期에이를어 全州紙物商諸氏가奮然히結合하야 組合을成立하고 紙物의品質改良을圖하며 在來紙品의特色을더욱發揮케한다는 報를듯고 우리朝鮮產業界를爲하야 歡喜不已하며 그組合의事業이 發展하기를心祝하엿다 그런데 近日에 이를어奸惡한仲介人과 暴利를食하는不正商人이 惡計로特同하야 暗暗裡에 不正粗雜한紙物을賣買하야가 그組合과個人사이에 新聞紙上에 問題가紛紜하엿다는것이다

◇筆者는 여긔에서그엇떠한個人의私事나 不正手段을論議코자하지는안는다 이것은 다시說明할것업시 正當한批判者가잇슬것이다 다만이러한紛紜한問題의解決에當面한 組合이 이러한不正한一二個人의背信行爲를 어떠케지든지處分하는同時에 그組合內에서 다시그러한分裂과背信이 아니나도록團結을 鞏固케하기를바란다(京城一紙物商)

生徒募集率 半으로激減
從來百四十名募集을 今春부터七十名으로
◇敎育界不安의첫消息

安城邑安城公立普通學校는同郡邑內寶蓋、金光、瑞雲、薇陽、大德等六個面의通學區域으로서從來에第一學年男子部二學級生徒百四十名式募集하든것을今春에는敎室關係로一學級을縮少하야生徒를겨우七十名만募集할뿐아니라女子部도各學年을複式敎授로하게되는同時에一學年生은겨우三十名內外밧게募集하지못하게되엿다는데이에對하야安城敎育界에는一大不幸을늣기게되엇는데이제그詳細한內容을들으면同校는大正十年度에入學率의增加로當地有志諸氏가寄附金을募集하야敎室을增築하든바今年에瑞雲面公立普通學校新築關係로校舍를增築할수업다하야그가리學級을縮少하더라

學父兄會열고 對策을講究

◇…郡守答辯痴冷 讀者이에對하야當地有志金台榮外數氏가郡守洪鍾萬氏를訪問하고여러가지質問이잇는바郡守는一般人士가寄附金을募集하여增築하는外에는別方針이업다고答하엿슴이엇는데當地學父兄會員들은來二十五日에學父兄會를開하고就學難에彷徨하는一般兒童을爲하야對策을講究하리라는바一般人士는이에對하야모든것을만히贊助하야當地敎育界에遺憾이업게하기를바란다더라(安城)

黃州面豫算高

黃州郡黃州面에서는去十八日面協議會를開하고新年度의編成을豫算하엿는데歲入歲出豫算이七千八百七十九圓으로昨年度에比하야四百八十五圓이增加하엿다더라(黃州)

金泉金融界

金泉金融界의預金과貸出을調査하야보건데十二月末外지左와如하더라(金泉)

	預金	貸出
殖產銀行	[illegible]	一、[illegible]
鮮南銀行	二三、一四四	一四八、七四一
金陵金組	一三七、八五八	一六一、七三六
金泉金組	三七一、三五八	三八、三三五

屯內金組創立

橫城郡屯內面에서는去十三日에屯內金融組合創立大會를開하얏는데業務開始는二十日부터하얏다더라(橫城)

東倉學術講習 公普指定不遠

孟山郡鶴泉面東倉市에敎育機關이업슴으로遺憾이든바에同面長白仁鎬氏外有志들의發起로創立

長淵緣故林 不正貸付解決?
이번特緣林讓與實施로

오랫동안緣故者와當局間에爭議를거듭하야오든長淵郡大救面의緣故林野不正貸付事件에對하야는緣故者中에서다시問題가繼續되든바去十九日에는長淵郡守原股常氏外에郡員五人이大救面에出張하야數百名을召集한席上에서緣故者間에홀曲한對策講究가잇서드되어今般特別緣故林野를無償讓與케되는期會로問題의黃海社貸付區域內의林野에限하야는어려우나이와가티貸付區內의林野全部에對하야讓與를못하게되면地方住民生活上에困難이잇슬터임으로郡當局의處地로多少努力하기로되어住民의死活問題로서의이貸付問題는압흐로解決을보게되리라더라(長淵)

寧遠에鑛業講演

平南寧遠郡에서는參與官及小賀技師가寧遠郡邑內에서十九日에鑛業講演이잇서地方人民에게만흔有益을주엇다더라(寧遠)

北國行(三)
東海散人

× × ×

읽기를다한나는 아모말이업섯다 勿論間島에잇다고하면부는方法으로든지그만한것을紹介할만한能力은가젓는것이다 그러나나는그들에게 間島에서떠러지는限이難事情을말하지아니치못하게되엇다 말을듯고잇든그들은 눈물外지는흘리지안흘程度의失望하는氣色이보힌뒤에 다시間島外지말도慰勞한뒤에 나는여러가지는二三親友에게 紹介書信을써들이고 또는朴君에게도所托하신바를寢諸하여들이지못하게된事情을簡單하게써서부처기로하고 疲困을늣기어나는寢室로들어갓다

『겐상』(元山)하는驛夫의웨치는소리에놀라깨니 朝日은벌서東天에소사오른고 乘客의大部分은벌서나렷다 나는다시三等室로달려가서 間島行의그네들을차젓스나 그들도이미下車한지오래엇다 車는十五分동안을停車한뒤에 다시구을기를시작한다 나는끔이생각하엿다 白雪이滿乾坤한沿線에 각금가다가 거진다쓸어저가는 草屋들을볼때에는 그야말로가슴치고痛哭하지안흘수업섯다 몃해몃달을지나지못하야 모조리쓸어커버리고 쫏겨가는慘狀이目前에눈앞에보이는듯하엿다 그리고그자리에는 다시洋館家屋이建築될것外지도 마치活動寫眞과갓치눈앞에나타낫다가도다시살아질째이엇다 車가咸興驛에到着하엿슬때이엇다 이날은咸興市日이오 또는陰正月대보름明節의바로前前날임으로 男女老少할것업시여러數千數百名이 四方으로蝟集한다 그러나그中에는大部分이女子들이다 咸鏡道風俗은 女子들이普通으로장사를보는것이 京畿에서는 볼수업는 한特色이다 그뿐만아니라 咸鏡道女子는 엇더한階級에屬한婦女子임을勿論하고大體에잇서서勞働하기를즐겨함으로性質이快活함으로보든지體格이强大함으로보든지 다른地方의女性들에게比할바아니다 나는혼자서부르지젓다 朝鮮全道의女性들이 모다咸鏡道女性들과가티 實際의勞働에從事하는 職業婦人이되엇스면얼마나우리의生活을向上함에 도움이될가하엿다 그리고아직外지도北鮮이南鮮에比하야는富의程度이라든지 理智上의區別이그와가티甚치안흔것도 一理가업는이 아닌줄아지도못해 놓엇다 이런생각 저런생각으로 혼자우서도보고울어도보고 하는가운데에車는어느덧全朝鮮鐵道沿線中에 가장景致가조타는退潮浩茫한大海에서 고기잡이하는一葉片舟며 四時蒼蒼한沿道의森林을바라 보면서나自身으로도웬지못하게 무엇을중얼거리는가온데에 車는北靑南大川鐵橋에올라서서 雄壯한汽笛소리를질러는조금잇다가『신호구세안』(新北靑)하는소리가들린다 나는오랫동안 憧憬하든故鄕에돌아왓구나하는마음으로行裝을收拾하야 下車하는時는午後三時五十分이요 川口에는벌서十五里나되는먼길을허야리지안코이곳까지出迎하여준家族들과十餘名親友가기다리고잇섯다(完)

天眞한少年雄辯을 警官이突然禁止
演題는『새해새싹』 ◇理由는上官命令!

元山南監理派敎會法少年會의主催로元山各幼年主日學校學生聯合雄辯大會를去十九日에府內南村洞禮拜堂에開한바定刻前부터밀어드는群衆으로하여금大盛況中에松興幼年校의鄭英玉孃의『동무들아』란問題와大로館橋洞幼年校朴鈞翰君의『새해새싹』이란問題로熱烈한雄辯을吐하고잇슬때에臨席하엿든警官은突然히이雄辯大會를禁止시켜數千群衆은異口同聲으로警官에게그理由를말하라고絶叫하야場內의空氣는極度로緊張하여젓스며主催側에서는一便元山署駐在所長武田警部補를차저가서禁止한理由를質問함과同時의解禁을要求하엿스나本署署長의命令임으로不得已自己로어쩌할수업다하야不得已無期延期를하고그만散會되엇다는데當地人士들은이러한어린이들의天眞한絶叫外지何等의理由업시禁止함은到底히참을수업는事實이라고憤慨함을마지안는다더라(元山)

慈惠醫院設置 都市計劃과

京義線沙里院實業協會에서는去十八日副會頭中村氏家에總會를開하고廿二日海州에서開催되는黃海道評議會에提議할件을討議하고總代로金弘亮、中上喜之助二人을選定하얏스며當日討議한事項은如左하다더라(沙里院)

一、沙里院에慈惠病院設置의件
二、都市計劃에關한件
三、道酒品評會開催의件

鎭東公普學藝會

昌原郡鎭東面公普校에서는去十八日同講堂에서學藝會를開한바千餘名滿場의大盛況裡에마쳣더라(鎭東)

衛益農民 會長除名
臨總決議

安邊郡衛益農民會에서는第二回臨時總會를去十九日星北里에開하고若干異論이잇섯스나左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新高山)

一、會長金錫麟氏의辭任은受理하고安鼎泰氏를補選
二、農民會代表라假稱하고營瑜機關에虛僞의報道를하고白紙捺印書類를無端使用한金錫麟氏는除名함
三、衛益水利組合設計書檢討委員은書面으로印刷配付할일

平北道評議

平北道評議員會는二十二日午前十時부터十日間豫定으로道廳會議室에서開會하엿는바要目은一、道路에關하야 二、產米增殖에關하야 三、學校問題에關하야等이라더라(新義州)

『分水嶺에서서』 群山講演盛況

群山基督敎靑年會主催와飢岩里讚揚隊後援으로去十九日에群山禮拜堂에서音樂及講演大會를開하엿는데演士李守敎牧師의『分水嶺에서서』라는講演과飢岩里男女讚揚隊의美妙한音樂이잇섯다더라(群山)

永興產組評議會

去十七日永興產業組合評議員會를永興郡廳內에서開하고金融組合聯合會에加入할件을비롯하야十四條項을決議하얏더라(永興)

金化公普校 高等科設置
學父兄會決議

金化公普校에서는去十一日同校內에서學父兄會를開하고滿場一致로左의事項을決議하고執行委員을選定하엿다더라(金化)

◇決議事項
一、校長選擇의件
二、高等科設置의件
三、女子部二級을三級으로擴張의件
一、敎室二個를新築할件

◇執行委員=金永淑 朴允錫 金麟燮

明太魚잘잡은 表彰式擧行

咸南新浦漁業組合에서는去十六日當組合에서組合員總會를開하고事業槪況에對한說明이잇슨後組合員으로明太魚에好成績을得한者에게表彰式을擧行한바受賞者氏名은如左하더라(新浦)

▲一等北靑郡新浦面文岩里洪裕換 ▲二等同面中興里梁斗星 ▲三等同面文岩里金俊津

龍井新聞配達 同友會創立

間島龍井新聞配達同友會는去十三日朝鮮日報支局에서創立總會를開한바宣言 綱領及規約과決議된事項及新任委員의氏名은다음과갓다더라(間島)

◇宣言、綱領、規約(略)
◇決議事項 一、組織 二、配達賃金 三、會館 四、會費等問題에關한件
◇執行委員=尹相國外八名

地方集會

●尙州靑年聯盟委員會 去廿日同事務所에서第二年第二回執行委員會를開하고左의事項을討議又는決議(尙州)
一、實總紛糾問題에關한件
一、新幹會에關한件
一、普明學院에關한件
一、會館貸付의件
一、委員辭任에關한件

●春川靑年會執行委員會 去十八日同邑東亞支局에서열고八장重要한問題로春總의紛糾事件에對한決議文을作成하고社會運動者들의集合할第二步 嶺西社會運動者懇談會開催에對한發起를數日內로열기로決議(春川)

●漆州勞働共濟第二定總 去十八日地理郭聖淑氏第에開하고左의任員과其他事項을決議(漆州)
任員 社長高聖淑 副社長金基卓 總務金周一 監査朴日成
◇決議事項 社員中患難疾病又는死亡일時에는每一人前에金二十錢式捐出하야極力互相救助할것

●裡里有志委員會 去十九日에臨時委員會를裡里旭町李晃珪氏第에開하고同郡昌熙氏가同會의侮辱을加한事實報告와그對策을決議(裡里)

●晉州勞働共濟會五週年紀念式 去十九日에開하고經過報告와金永進外四氏의感想談과勞總其他祝電朗讀이잇고馬山勞農會昌原超佑濟等今後方針에對한意見等으로式을마치고紀念撮影과勞働共濟會萬歲로閉會(晉州)

●尙州靑年委員會 去十九日同會事務所에開하고左의事項을決議(尙州)
調査部의作成件 郡內非加盟團體의加盟勸誘 定期大會時日을來三月卄七日로豫定 其他

地方人事

▲金正雨氏(本報廣州支局總務) 去二十日부터二週間請暇

社告

本報第二千三百三號朝刊第一面社告欄에記載된草溪支局設置社告中支局長姜三求을支局長姜仁淑으로記者車点俊을記者車貞俊으로誤植되엇삽기玆에訂正함
朝鮮日報社白

今般本報順天支局을左와如히變更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一、支局名稱 順天支局
一、支局位置 順天邑內
一、支局員氏名 支局長 尹貴重
朝鮮日報社白

入學案內(5)

仁川商業學校
◇募集 約五〇名
◇志願 三月五日外지
◇試驗 (銓考)三月十二、三兩日間▽(選拔)同十三四兩日
◇科目 (選拔)高普同一
◇資格 高普外同一
◇其他 場所仁川府松林里同校 受驗料二圓

平壤崇實學校
◇募集 一學年約一〇〇名▽二三四學年若干名
◇志願 三月廿日外지
◇試驗 三月卅一日부터四月一日
◇科目 (補缺)國語、算術▽(編缺)各志願學年以下年級의全科를試驗함
◇資格 高普外同一
◇其他 場所平壤府新陽里同校 受驗料一圓

梅洞商業補習
◇募集 一學年約一二〇名▽二學年若干名
◇志願 三月卅一日外지
◇試驗 一學年은四月一日▽二學年은同月二日
◇科目 (一)國、算(二)一學年科目
◇資格 高普外同一
◇其他 場所京城府梅洞同校

宣川信聖學校
◇募集 一學年約一〇〇名△二三學年若干名
◇志願 三月卅日外지
◇試驗 四月一二兩日間
◇科目 (一)國、算、朝、日本歷史及地理、理科△(二)國、英、日歷、日地、算、植△(三)國、英、日歷、外地、代、動
◇資格 高普外同一
◇其他 場所宣川郡邑內同校

平壤崇仁學校
◇募集 一學年約一〇〇名△二三四學年若干名
◇志願 三月廿九日外지
◇試驗 三月卅一日로四月二日
◇科目及資格은高普外同一
◇場所 平壤府內同校

大邱高普校
◇募集 約一〇〇名
◇志願 二月廿八日外지
◇試驗 三月九日부터三日間
◇資格 他高普外同一
◇其他 場所大邱府同校 授業料每月三圓 受驗料二圓

忠北公立農業
◇募集 約五〇名
◇志願 三月五日外지
◇試驗 (資格)三月十日로兩日間▽(選拔)同十二三兩日間
◇科目及資格은高普外同一
◇其他 場所淸州郡本町同校 受驗料一圓

木浦公立商業
◇募集 約五〇名
◇志願 三月五日外지
◇試驗 三月十一日로十四日
◇科目及資格은他商校와同一
◇其他 場所木浦府同校

鎭南浦公立商工
◇募集 商科約五〇名▽機械科約四〇名
◇志願 三月二十日外지
◇試驗 (銓定)四月四日▽(選拔)同六七兩日間
◇科目 (銓)國、算、地歷、理科▽(選)同一
◇其他 場所鎭南浦府同校

【以上詳細는同校에問議】

【訂正】 昨日本欄京城工業學校資格는『尋小高等科卒業又는高普、中學二年修了者』의誤記이며受驗料는업는것이기玆에訂正함

卒業生就職問題와 學務當局의頭痛

조선안의전문학교졸업생가운데 조선내의취직희망자가구십여명

各道에採用을命令

최근학무과에서 됴사한바에 의하면 금년도조선내의 각전문학교졸업생중 조선내에서 취직을 요망하는자는 법학전문학교 졸업생이 이십사명, 의학전문학교가十명, 수원고등농림학교가 오십사명, 고등공업이 십일명으로 합계가 구십명인바 그중조선인이 삼십구명 일본인이 오십일명으로 학무당국에서는 조선내에 전문학교를 설립한취지를 보아 그 졸업생의 취직을 알선할책임을늣기고 만흔노동을 하는중이라는데 각도내 각관서학교병원등에서는 각졸업생중 반듯이 한사람식을 채용할것을 각도지사에게명령하엿다더라

前途가寒心한 德川光成學院

평남덕천군잠상면 번석리(德川郡蠶上面番石里)에잇는 사립광성학원(私立光成學院)은 지금으로부터 륙년전에 그곳의 리민들이 각각의연금(義捐金)을 모아 근이천원이란 거액의돈을 적립하고 여러가지파란속에서 오늘까지 근근히유지하야왓스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결국비운에 처하엿다더라(덕천)

大邱南原間鐵道 實現은何時?

실디됴사와연선경제됴사 鐵道局은考慮中

대구남원간(大邱南原間)의텰도부설문데는 동텰도긔성회에서 조선텰도회사에서 부설치 안는경우에는 부근주민들이 독립된 텰도회사를 신설하기로 결의한바가잇섯는데 텰도당국의 의향을들으면 대구와 남원간의텰도는실측도사(實測調査)를한후 다시연선의 경제됴사를 마친뒤가아니면 인가를 할수업스며 더욱이남조선방면에는 만흔텰도부설안이 잇서 이미다방우려자의 신청이잇스나 대구남원간의 텰도는아직 엇더한것인지도 모를뿐더러 만일에 동텰도의부설운동인가한다면텰도국에서는 팔부가량의보급금(補給金)을 급여치안흘수업슴으로보급금이팽창한오늘에 잇서서는 신중한고려를 아니치못할형편에 잇다하며 더욱이현재는림항텰도(臨港鐵道)와동경텰도(慶東鐵道)순룡텰도(順龍鐵道)순려텰도(順麗鐵道)등이잇슴으로보구남텰도는아직도 수년후의문데라더라

新民府本部 根據地移轉

날로심한중국관헌원포 幹部도所在不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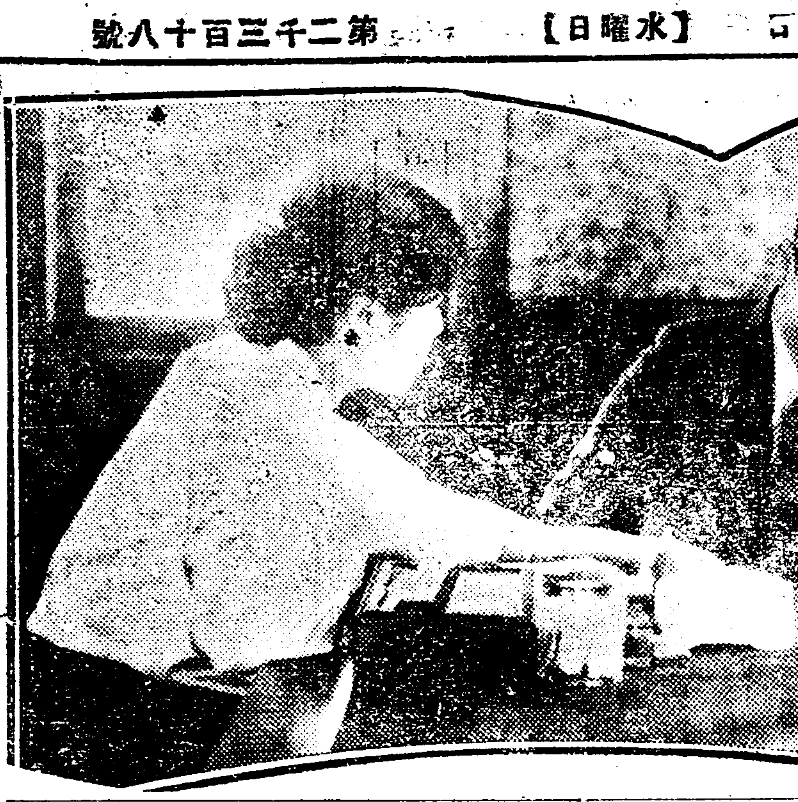
만주오주현 소뎡자(烏珠縣小亭子)에근거를두엇든 신민부(新民府)는그동안여러가지사정과 중국관헌의 취톄가 돌연이엄중한외에 그중요긔관을 ○○으로 이뎐하는동시에 간부들도 전긔오주현을 떠나게되엇다하며부범한 중국관헌들은 일반주민들에게 신민부원을 차저내라는등횡포에 주민의불안이 날로심하더라(녕고탑)

東京에積雪 동경디방

은이십이일 새벽부터 만흔눈이 나려서 정오까지에는 적설이삼촌에달하고도여전히계속중이라는데 시내의모든교통긔관은 이미곤난을 늣기는중이더라(동경뎐보)

檢事出張調査 위자료청구소송에

긔보=대구로동친목회원(大邱勞働親睦會員) 김만덕(金萬德)(四0)이가신년벽두에 무참이 대구역구내 화물차사이에서 텰도국신호수(鐵道局信號手)의부주의로 치어죽고 그후로동친목회에서 텰도국을 상대로하야 대구검사국에 위자료금 장례비(慰藉料及葬禮費)를 청구한사실은 그후검사국에서 여러방면으로 됴사하다가 지난이십일은 일요일임도불구하고 산택검사(山澤檢事)와 대구서 사법주임 수목경부(須木警部)와 밋형사두명이 현장(現場)에나와서 약한시간가량이나 각방면으로 됴사하고잣는바 장차결말이 어떠케될는지 대구노동친목회와 밋일반사회는당국의처치가 여하히될는지 매우주목하고 자못흥미를모는 모양이더라(대구)



金泉公職者會에서 農林校建設請願

고등보통학교긔성회가 조직된것을불구하고서 一般意思를全然無視

금천(金泉)에 고등보통학교긔성회(期成會)가조직된이래파란이 중첩하야 그동안침체하든중 일반인사는 여긔에 만흔불만과물의를 늣기어오든바 최근에와서는 소위공직자의 모임인공우회(公友會)에서는 금천고등보통학교긔성회의 설치된것도 불구하고 일반의의사도 무시하며농림학교(農林學校)를설치하야달라고 도당국에 청원서를데출하얏다는데 이것을 알게된금천고등보통학교긔성회에서는 즉시 긔성회를열고 위원을 선동하야각방면으로활동을 개시하얏다는데 느긔도래월상순경에는군민대회를열터이라더라(금천)

消防手의行悖 충주

충주(忠州) 소방조에서는지난십오일에 출초식(出初式)을 거행하고 일반소방수송본삼시(松本參市)는 경송을처려고경송네(慶宋家)에 올라간김가진(金可鎭)을부단히구타하야 이틀중까지 생기게하얏슴으로 김씨는 저투하려하엿스나 여러사람의 만류로그만두고다시고소를제긔하려하매 경찰서에서는 고소하지못하게하고 소방조두목령목(鈴木)씨는 다시 김씨를 청하야 화해하자고 하고삼십오원을위로금으로주고 말앗다는데 충주일반인사는 비난한다고(충주)

線路通行中 足指를切斷

시내봉래뎡(蓬萊町)사정목팔십륙번디 양재혁(梁在赫)방에 잇는노동자신십동(辛十童)(三一)은 지난 이십일날 오후두시사십분경 경성역(京城驛)구내선로(線路)를 통행타가때마츰 련결시킨화차(貨車)에 치어바른편 발(右足)과 손가락두개가 부러진것을 곳부근병원으로 다려나가 응급수당을한결과생명에는별노관계가업다더라

志賀氏의美事 황해도송

황해도송화군ㄴ방면구탄리(黃海道松禾郡蓮芳面九灘里) 일인 지하(志賀)는그면내 마산리(馬山里)리범수윤봉상(李範秀尹鳳祥)두집의가련한정상을보고현금이원식을논하주엇스며 일반의 가난한면민들에게동정이잇다고칭송이자자하다고(송화)

懸賞童話大會 간도소년군

간도소년군본부(間島少年軍本部)주최와간도일보사(間島日報社)후원으로도소년현상동화대회(少年懸賞童話大會)는음력정월십오일밤에간도공회당(間島公會堂)내에서열엇다고(간도)

朝鮮映畫 怪人의正體 全八卷

極東키네마第一回作品

主演 金哲山氏 申一仙孃

그동안 시내종로삼정목에 잇는『극동키네마』에서제작중이던탐정괴긔극(探偵怪奇劇)괴인의정톄(怪人의正體)라는작품은요즈음에 완성이되엇다는데 동영화는 긔보한바와가티 조선서처음되는 탐정활극으로 극중에자동차, 비행긔, 오ー트바이, 등을사용하야 실노히 아슬아슬한장면도만흔바 아직시사(試寫)도 해보지못햇슴으로 작품의성공불성공은 알수업스나 엇잿든조선서는처음되는괴긔탐정극임으로 일반은 지금부터매우기대한다는데 동작품에대하야 특히더서두셔할것은 조선 키네마의작품인『아리랑』『봉황의면류관』등에 출연한신일선(申一仙)양을 제외하고는 전부한번도영화에출연해보지안흔소인배우(素人俳優)를사용한것이라하겟스며 동영화에비행긔가 뜨는장면에는 특히 이등비행사(二等飛行士)리긔연(李基演)씨도출연하엿다한다

演藝와映畫

映畫로사는사람 勿驚卅二萬人

一週間의觀客無慮一億

영화의권청시대를 현출하고 잇는미국영화제작배급업자협회총재(米國映畫製作配給業者協會總裁)인윌헤이쓰씨는미국영화계에대하야왈에와가튼놀랄만한조사를발표하엿다 즉현재미국에잇서서영화에종사하야 그것으로사는사람의수효는무려삼십만오천인의다수에달하야일개년에제작이되는영화수는평균삼천본에달하야그것이다시전미국에잇는이만 일천혁백의 영화극장에배급된후 거긔서다시 일의만인의관객을흡수한다고 말하고또헤이쓰씨는이와가튼 놀날만한수자(數字)는영화라는것이얼마나 사업으로서 가치가잇고또민중에게잇서 조흔오락이 되며 그리고종합예술(綜合藝術)로서의 얼마나위대한것인것을 증명하는것이다라고 부언을하엿다 한다

一個年間半 連續上映!

世界最初新記錄

작년에미국에잇는『포드、폴레이사의 추천영화메달을 획득한『갈바ー드씨와레ー니、아드레ー의주연인『되、씩、파레ー드라는영화는 봉절이래절대한인긔를어더뉴욕에서 일개년반이라는 세계최초의 레코ー드로련속상영을마치엇다는데뉴욕이외에도『쒸스트에서는일개년삼주간『구리부란드에서는 일개년 사주일등련속상영중 이라는바 또일개년이상련속상영의장소는 일곱도시에달한다고

(사진은괴인의정톄의한장면)

墳墓爭奪싸움

서로제조상이라고주장 ◇果然누구의墳墓?

안주군동면(安州郡東面)에잇는 다문허진분묘(墓)한장을가지고 서도 제조상이라고 싸우는사실이잇다는데 지금으로부터 약삼십년전에 그당시 안주에잇든김익현(金益鉉)이라는사람이 자긔의조부를 전긔동면에뭇고 생활이넉넉지못하야 안주를떠나 곳곳으로 돌아다니든중 최근에는 돈량도벌엇슴으로 조부의 분묘를개봉축(改封築)하고자돌아와보니 제주강영백(姜永伯)이라고 표말을박아잇슴으로 크게놀래어 개천군외서면(价川郡外西面)에잇는 전긔강영백을차저가서 묘에대한연유를물은즉 수년전에 자긔모친의 분묘라고 함으로 묘근방에사는 사람들에게도 물은즉 어떤묘인지 자세히모르나여하간 김익현도 그부근에분묘를쓴것이 사실이며 강영백도 그근방에 무덤을썻든것이 또한사실임으로 진가를판난하기가 실로곤난하다는데 김익현은 강영백을걸어 소송을데긔하리라더라(안주)

署長檢事密議 녕변보

희천에서 긔자를감금한 사건에대하야 관서긔자단에서는 희천에가서 사건진상을됴사한다는 말을듯고 희천경찰서장은 즉시녕변지청 검사를차저와서 오래동안 밀의하엿다는데 내용은긔자감금 사건인듯 하다고(안주)

郡職員의非行

양평군직원(楊平郡職員)등은 밀주됴사외에 삼옷을바드러서남면모의집에이든대 주인의승락도 밧지안코수색을하든중 소만한 누룩덩이를 발견하고 무슨큰비밀이나발견한듯이 온집을수색하되 밀주를발견치못하고 심지어 사당집가지 수색을 하라함으로 주인된 리씨가 말하기를 무슨사당에다가 감추어 두겟느냐한즉 군직원모는 리씨에게 몹시 불공한어조로 반항을하며 뒤져보앗스나 마츰내발견치못하얏다는데 일반인사들은 비난이자자하다더라(양평)

不正事實暴露로 白翎面長被訴

전후의부정사실이폭로 面民一般의非難沸騰

황해도장연군백령면(黃海道長淵郡白翎面)장 리신항(李愼恒)씨는 본년부터 면행정에대하야 몹시전횡하고 공정치못하다는 사실로 면민의 불평이 자심하든중 수년전부터 동면경영의 잠수긔(潛水器)에관한사무와 지동면장이 단독으로 당임하야가지고 경영하든바 그사건에대하야 또한부정사실이 만히발생함으로 면민의 의심과불평이 더욱심하게되자 군수에게까지도 이사실을 고하고 리면장에게 잠수긔사무만은 내어노흐라고한바문에 부득이그 사무를 내어노흔동시에 면민부후계자인 면민대표 몃사람에게 내어주엇든바 면민대표는 그것을바다가지고 검사한결과 여러가지부정사실이 발각되는중 특히 금륙백여원의허위긔입한 사실이 판명되엇슴으로 면민대표는 동의해결을 관유한후 문부를 돌두내어줌으로 면민들은 다시 회의한후송화(松禾)검사국에고소하기로 결뎡하고 대표자를송화로 파견하얏다더라(장연)

金海合成學校를 財團法人으로

設立코저當局者努力

김해사립합성학교(金海私立合成學校)는설립한지가오래고또긔본재산이충분하야하등 누족이업시 잘경영하야옴으로 그경영자케씨는 이학교를 승격코자노력하고잇스나 작년에김해공립농업학교(金海公立農業學校) 설립된데로말미아마 일시 적지안흔 분규를바닷스나 금번에는 이분규도쌍방의 량해로종식되고 말엇슴으로 지난십칠일에 이학교의장래를당국사인 교육회장 허발(敎育會長許發) 동총무박석권(同總務朴錫權)동상무배종렬(同常務裵鍾烈)삼씨가경남도텽을방문하고이학교장래에대하야여러가지량해를어덧슴으로금후부터는압서학교를재단법인(財團法人)으로설립하고 또사립보통학교(私立普通學校)로승격하고자운동하리라더라

檢束된記者를 檢事局에送致

긔보=평북희천경찰서(平北熙川警察署)에서 순사가녀교원을 능욕하엿다는 사실을 신문에 발표하엿다고 본보 희천지국긔자를 감금한데대하야 관서긔자단(關西記者團)에서는 그사실을자세히 됴사하야 발표하엿는데 지나간이십일일에는 전긔자를 신의주디방법원 녕변지텽검사국으로 넘기엇다더라(안주)

關西記者團 必死的活動

희천경찰서에서 무리하게 긔자를감금한데 대하야 관서긔자단에서는 그사건뿐아니라 여러가지 숨어잇는 사건까지 필사뎍으로 됴사에착수하야 세상에공개하리라는데 벌서 각방면으로부터 확실한단서를 어덧다더라

職權濫用으로 密陽郡屬拘禁

면서긔시키고뢰물바다 一般은非常히注目

밀양(密陽) 군속(郡屬) 허종대(許宗大)씨는 직권남용으로 지난칠일날 밀양경찰서에 구류취됴중이라는바 자세한 사실을들으면 밀양군령하부계 삼사년 재근중인이든바 동군도 합십삼면중에 일곱면장과 밋오십명의 면서긔를신임한 관계도 구금취됴중 부북면(府北面) 양복점(日與洋服店)주인리모의 부탁에의하야 모씨를 임명시키고 양복한벌을 뢰물로 바든것이발각되어 그와가티 구금된바 이후검과 들일반군민이 매우주목한다더라(밀양)

平壤聯隊軍人 절도후호유중데포

평양보병련대(步兵聯隊)에초년병(初年兵)으로금년에새로히입영(入營)한토거광광(土居光廣)은자긔가 입영하기전 즉작년말까지 대판(大阪)서 활동사진관변사노릇하얏든것을긔화로평양해락관(偕樂館)에가서련대를속히고 일요일마다 활동사진설명을하여주기로한후 지난이십일 활동사진설명을하려고 해락관으로가서군복(軍服)을벗고그옷에 송뎐지배인(松田支配人)의옷을어더입엇든중 그옷속에 돈삼십원이잇슴을 발견하고 즉시그 돈을훔쳐가지고유곽(遊廓)으로가서 호유하다가 전긔송뎐이가 헌병대에 통지하야즉시데포되엇다더라(평양)

河豚으로 二人死亡

안수로먹고

평남대동군고평면 송산리(大同郡古平面松山里)사는김병현(金秉鉉)(四十)은 생활이곤난하야평양으로들어와서 로동이라도 할려고 지난이십일에 가족여섯사람을 다리고 평양시외서성리(西城里)구십번디리동욱(李東旭)(四四)의집을차자와서 방한간을 어더잇기로하얏는데 주인리동욱은 처음온김병현을 대접하기위하야 술을사온후 그뒷집에잇는 림녕숙(林貞淑)(三五)림뎡학(林貞學)을청하야가티술을마시다가 림녕숙은 김병현을 대접키위하야 주머니를털어 돈십전을가지고 안주를살어간동안에 리동욱이가 림녕숙의 집을가서 절구안에잇는 생선내복가튼것을갓다가 요리노코 술을먹엇는데 오후여섯시쯤하야각각헤어저집으로 돌아갓는바 전긔김병현과 리동욱은 잠든것가티 죽어버린 것을 이십일날 새벽에가족들이 발견하얏다는데 그생선 내복은 림녕숙이가그날평양뎡거장압 면청결동에서가저왓든것이라는바 복어(河豚)의 내복인듯하더라(평양)

美人賭博團 安州署一網打盡

미인만으로조직된도박단 경관을속이다가결국데포

지나간 이십일일에 안주경찰서(安州警察署)에서는 안주군안주면신의리(安州郡安州面信義里)의 김모(金某)의 집을재빌 목석(盛石)(三)외에 비녀명의부가며 엽하이잡진후의 미인들을검거하엿는데 그들은오래전부터 조직되어 교묘히경관의 눈을피하야 도박을 하던바마츰내이번에 발각되어 그와가티 데포된것이라는데목하안주서에서는엄중히취됴한다더라(안주)

高官은虛事요 全財産만蕩盡

轉轉乞食으로還鄕 보텬교에혹한평남삼군민 普天敎罪惡은如此

평남녕변덕천맹산(平南寧邊德川孟山)세골에허터져잇는 보텬교(普天敎)신자들은 모다 산간벽디에잇서 현대의문화를 모를뿐아니라 무식하고 순진무구한 농민들이 근래이 수년간을두고 소위 해교륙임팔임(該敎六任八任)이라는 무리배들이 사방으로집중하야 방방곡곡이 보텬교 선전을하며이와가튼 조흔긔회를 리용하야 정읍(井邑)으로 이사를 하여야란시(亂時)에도 생명을 보전할뿐만아니라차텬자(車天子)가등극(登極)을 하면 반드시보텬교신자는관공리(官公吏)를시킨다는 허무맹랑한 수작으로순진한 농민들을속히어 전가산을 탕진케하야 가지고 전긔정읍부근으로 이사한후 특별한대우나 바들가하엿더니 대우는 여하간 번번히와서 막대한금전을 청구하매 사실로차텬자가 등극하려니밋든 그가련한사람들은 장래에 큰상이나바들가하야 진심갈력으로 돈을내이고 일일월식의 호구조차 할수가업서 남부녀대하고 전전걸식으로 고향에돌아와 친구들의동정으로 근근히연명을하며 보텬교가 멸망하라는 긔도만한다더라(은산)

面吏員逃躱

공금횡령하고서

대구경찰서관내모면리원(某面吏員)은공금수천원을횡령하야가지고 도주하엿다는말을 듯고 즉시됴사에착수하엿는바 동면리원은 어데로도망하고말엇는지 방금 행방불명임으로 각방면으로 대수색을하는모양이라더라(대구)

二十圓자리火災 경북상주

경북상주(尙州)군인봉리(仁鳳里)일백이십일번디에사는 황덕수(黃德[illegible])의집에서 지난이십일밤열한시오십분경에 불이나서 일시는 대혼잡을일우엇는바 다행이소방조원의충활동으로약삼십분간에 진화하엿다하며 발화원인은이웃집어린아이들의불작난으로일어낫다하며손해는이십여원이라고(상주)

祝朝鮮日報 大邱支局 七歲童沈載昊

七歲天才兒 경산군경산

경산군경산면옥산리(慶山郡慶山面玉山里) 심자선(沈子璿)의아들 심재호(沈載昊)(七)는대구부남산뎡(大邱府南山町) 출생인바 그는글을 배운지 불과일년만에 한문글자(漢字)오천자를알며 따라서글씨까지능란하다고(대구)(사진은 심재호와그의글시)

本夫殺害한 姦夫婦

복심법원에공소

지난이십일날 평양복심 법원에는 남자두명과 녀자한명이 한포승에묵기어 온일이잇섯는데 이들은 지난달이십륙일 신의주디방법원에서 각각사형(死刑)과 무긔징역의 선고를밧고 이를억울하다하야 공소(控訴)한것이라는바 그내용을들은즉 그녀자는 평북후창군후창면회동(厚昌郡厚昌面檜洞) 김긔률(金基律)의처 한긔순(韓基淳)(二十)으로 그동리 림영실(林永實)(三一)과 간통(姦通)을 하여오다가 사랑은날로 깁허가나 본래김긔률이라는남편이 잇슴으로 가티살수 업슴을 한탄하든바에 작년십월이십오일밤 김긔률을 업새버리기로 약속하고 림영실은 그동리에사는김일근(金日根)(二三)과 이십구일 김긔률을 다리고 대안(對岸)인중국(中國)으로 건너가 술을만히 먹이어가지고 돌아오다가후창강(厚昌江)하류에서김긔률을 몰도더러 무참히 죽엿다는사실인데 김일근만은 무긔징역이오 간부간부두명은 사형이엇다는바 복심공판긔일은 아직작뎡치못하엿다더라(평양)

中國强盜 지난십팔일오후

지난십팔일 오후세시경에 강원도통천군 학일면(江原道通川郡鶴一面)에사는 최덕만(崔德萬)이라는 사람이어머니를갓다가 그의집으로 돌아오는길에 학산면(鶴山面) 부근을 통과할즈음에 별안간뒤로부터 복면한중국인두명이 검이가 약한사람이 들장검을내여 보히며 위협을한후 전긔 최덕만이가가지고잇던 현금 사십이원여를강탈하야가지고어데로인지자최를감추어 버린사건이 돌발하얏다는데 이급보를접한 통천경찰서에서는련일 면야범인을데포코자대활동을 하얏스나 그러나범인의종적은 묘연하야 아즉것아무단서도 엇지를못하엿는바 최근에이르러 그범인이 시내에잠복한혐의가 잇다하야 경긔도경찰부에 그수색을 의뢰해왓슴으로 시내각서에서는관철동(貫鐵洞) 관수동(觀水洞)등디비교뎍중국인이만히사는 장소에 형사를배치시키어 목하범인을 엄탐중이라고

一家三名死亡

장질부사로

혼춘현두도구(琿春縣頭道溝)에는 약일개월전부터장질부사(腸窒扶斯)가창궐하야 일반주민들은 근심한다는데 요사이에와서 당디에사는구광필(具光弼)이라는사람의 집에서는 가족세사람이 련하여 사망되고 그이웃에까지 전염되어구룡수(具龍洙)의가족한사람도 즉사하엿다는데 혼춘,두도구 량민회(民會)에서는 예방하기에 매우 분망중이라더라(간도)

휘파람

▲화천에는무산동민으로 조직된화농(華農)청년회가잇음으로생겨낫다▲그런데 조금유식하다는엇던 량반은 처음으로도 이런단톄가생긴것을 영광으로생각지는못하나마 오히려 그회간판을보고『개가튼놈들이무엇인다고집안이냐』고 경찰서에가마에다니다『나고』 눈을부릅뜨고소리를질으더라나▲소위유식하다는자가 이러하니 정말식자가우환이야 ▲아마유식해서 출신모양이지 ▲욕설문이나례를해서 박사디위나 좀어더보는것이엇데……

畓中에稻穗尙存

雨水經過한此時 소작료가소출보다만하 감해달랫더니지불명령 稀聞의苛酷한地主

전북남원군대산면옥률리(全北南原郡大山面玉栗里)의 강변평(江邊坪)약이두락의논에 아직까지 수확아니한벼가 모진바람 찬눈에시달려 빈대만 남어잇서 래왕인의눈을놀래게하는동시에 동디박봉서(朴鳳瑞)박봉우(朴鳳宇)오동규(吳東奎)세사람에게 소작료지불명령이 두번이나왓다는데 이제 그자세한사실을듯건대 그토디는취방리(鷲芳里)모의소유로서 삼년전에 전긔삼인의려대로 소작권을어더 일년에는박봉서 이년에는박봉우 예삼년에는하수정(河洙正)이가경작하야 모다비렁만흘리고 소득이업슴으로 전년봄에소작권을 포기코자할때에 동리김규원(金圭元)이라는사람이간칭하야 소작권을어든후(本小作人에게서)김규원은 다시동면운교리(雲橋里)에거주하는량영수(梁永壽)정수(鄭壽)두사람에게 사원을밧고소작권을 매도하얏는데 전긔량인이실디농작하엿든바 량영수씨는미리수확하고정수씨는 소작료가태과함을탐하고 권리김규원에게 감하야달라고청한바 돌주어 이어 소작료지불명령만 원소작인이던박봉수 박봉서 오동규삼씨에게 전후두번이나왓슴으로 실디소작인 량영수(梁永壽)씨는 일년간의피땀을흘려 지은농작물을그대로두고 일본으로갓다더라(남원)

映畫小說 白衣人 【二十七】 李慶孫 作

이튼날이되엇다 두사람이 탄긔차는 벌서 거반나개성에온십이다 부드등머며 지금스는곳이 장단이니 인제 립시역하나만지나스면 송도에닷는나

『인제 개성이지?』

『왜 또하나 조그만것……』

『참새로지은것하나가잇지』

두사람은 창밧글 내다보며그가티 중얼거렷다 해는벌서울정복관에잇는모양이다 논우에 어름들은 봄긔운을마럿는지 녹을예산으로 증편과가타지엇다 멀리보히는 아까시야안에 흰벽은부슨학교인지 흰저고리에 검은치마를입은 선생님이 면긔인형모양으로 이리갓다 저리갓다하면그를 딸으는 어린이의 무리도 오물거리며 이리오고 저리간다 운동장의 봄눈물은 벌서봄인지 범어저노 아니알흔모양이다 그 선생을 바라보고안젓는 정애는 『조쿠나』하엿다 랍잇는 생활이로구나라는듯이다 그래서 그와 자긔의몸을 비교하여보고 쉬혓다 자긔가 정동만마치고그만두엇드면 저가튼 생활을 하게되엿슬가하는 생각도하여보앗다 저생활은 무엇이며 자긔의장차하라는것은 무엇인가하엿다 저이는 조혼이요착한이다 조혼날을 한다하엿다 그러나자긔는장하게되는것이다하엿다 장차가떠난다 표밧는문에 긔착을하고잇는 순사를 멀리하며차는다라난다

인제는 개성가서 할일을예산치기가 밧블때이다 아모것도모르는 어머니압헤 그위대한사랑압헤 거짓말을느러노흘 생각을하니 답답한일이엇다 여러가지로 어머니가 자긔를 마지하는광경을 상상하여보앗다 그러나아노티 순하신어머니압헤는 하로밤동안에 모든것을 자백하고리해엇도록 되가는 어려우리라하엿다 아모래도 그럴것이다하면서 개청에 도착하엿다 누가무어라봄어봄은 안인데도 개찰구넘어스기는 구술시험보양으로 거북하엿다 경식이의 류뵈곳이미리어머라고 말못할형우임으로 두사람의나린곳은 자연히 자동차대합실이엇다 지금부터 딧는땅은고향이다 아는동무를 맛날지도모를일이며 자긔는몰라도 자긔를 아는사람이잇슬시도 모를일이다 그뿐아니다 개성만하여도 서울과는다른곳이니 자긔나히로 사나히와갓치는 어려운일이다

『엇다가 정일가』

경식이에게는 조금도 그가튼눈치는업섯다

『각가운데정해요』하는정애는 어서좀 대문안으로 숨고가십다는눈치를보혓다

두사람은 기동밋 웨본라긔가노혀잇는 려관집마당에서 작별을하고 정애는 자긔의집을향하야 길에흰보래설린 맑은시가를 걸어갓다 될수잇스면 밤에한번놀라오고 그러치안흐면 래일아츰에나오라는 약조로 헤여진것이다 어머니에게는 무에라고속일것인지 어쩌게 생각한바와가티 총독부 일본사람이 공부잘하는학생들은 류학보내주는데, 자긔도 그중의한사람으로 뽑히엇다고하여볼는지 그러나 여하게와 길들, 내어 정다운자긔집문권을당도하얏다

비와바람에 시달린 소시학교금출(揭揮貴金出)을 쳐다보며 세거소리를내엇다

어머니의 얼굴은 부억에서나와다 수업는수름살은 련일을마지하기에 더욱은선으로 종횡하엿다

『어머니!』

『너로구나……』

결결한 어머니의손에 두손이잡힐때 마조보며 속입엄사옷고만잇슬수업는 정애의가슴은 슴흐엿다 내가이분을 엇더케속인단말이냐 영광스러운 압길을위하여서는 이러한 희생도맛보아야하는것인가하엿다

『엇더케왓니 그에보앗나?』

『누구?』

『못보앗나? 긔영이도와가치에올다갓지』

옵바의 이약이인줄만 알앗는데는사건이매안심이엇다

『못보아』

『어서올라가자 그리지안어도……어유 몸을것들 엇저면안오는대신 편지도 업단말이냐』

『……그래휴가아니냐?』

『……아니……』

무어라 대답하여야 조흘나그대답을 슬그먼이 거처다보량으로외선 손에들엇든것을 마루우에노코 신발을 벗기거북한듯이 버서가며 일초이초를 외누리하면서마루우에올라섯다

(揷畵……申一鎭)